

남영호 대장, 세계 최초로 그레이트 샌디·깁슨 사막 '무동력·무지원' 횡단



코오롱스포츠 헬린지팀의 남영호 대장이 이끈 원정대가 세계 최초로 호주 그레이트 샌디와 깁슨 사막을 자전거로 횡단하는데 성공했다. 4월20일 호주 엘리스 스프링스를 출발한 지 22일 만의 쾌거다. 남영호 대장, 라이언 코프, 제이슨 리처드 스미스(왼쪽부터). 사진제공 | 코오롱스포츠

물 보충 없이 700km “마치 지옥 같았다”

코오롱스포츠 헬린지팀의 탐험가 남영호(37) 대장이 호주 그레이트 샌디와 깁슨 사막을 팻바이크(설월 및 사막용 자전거)를 이용해 무동력 횡단에 성공했다. 이번 원정에는 제이슨 리처드 스미스(35·미국)와 라이언 코프(28·호주) 대원이 남 대장과 함께 했다. 남 대장의 원정대는 4월20일 호주 중심부 지역인 엘리스 스프링스를 출발해 22일 만인 5월11일 오전 11시(현지시각) 서부 해안의 80마일 비치에 도착했다. 1680km에 걸친 그레이트 샌디와 깁슨 사막을 무동력, 무지원으로 횡단했다. 무동력, 무지원 횡단은 세계 최초다. 서호주 지역에 위치한 그레이트 샌디와 깁슨 사막은 그레이트 빅토리아와 함께 호주 3대 사막으로 꼽힌다. 대부분 모래언덕으로 되어 있다. 그레이트 샌디 사막은 사하라 사막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사막이다.

22일 걸쳐 1680km 자전거 횡단 사전조사 불구 우물 없는 곳 많아 온전히 자전거에 실은 물로 버텨

“사막은 엄청난 매력을 지닌 장소 10대 사막 두 다리로 건너는게 꿈”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그러나 물이 없는 지옥이었다
횡단에 성공한 남 대장은 “세 명 모두 횡단에 성공해 기쁘다.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했다는 것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할 수 있었고, 함께 이루어냈다는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 대장은 이어 “그레이트 샌디 사막은 2013년 미국 NASA가 발표한 ‘우주에서 찍은 가장 멋진 지구사진’에 꼽혔다. 수많은 모래언덕(사

구)이 형성되어 있어 장관을 이루지만 무동력으로 탐험하기는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라며 “낮선 오지를 횡단하는 것도 모험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도전한 것도 색다른 모험이었다”고 덧붙였다.
도전대상이 사막이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물이었다. 지원팀이 없는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대는 온전히 자전거에 실고 가는 물로 버텨야 했다. 사전에 위치를 파악해 놓은 우물, 비상용 물탱크가 막상 가 보니 존재하지 않는 곳이 많아 허탈함에 빠지기도 했다. 남 대장은 “특히 마지막 그레이트 샌디 사막구간 700km는 마을이나 물을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이번 원정 중 가장 힘들었던 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10대 사막을 두 다리로 건너 최초의 인간이 되고 싶다
남 대장은 고산이 아닌 사막이 ‘전공’인 탐험가다. 광활한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는 것이 주특기다. 타클라마칸(2009), 고비(2011), 그레이트 빅토리아(2012), 아라비

안 엠티쿼터, 그레이트 베이스(이상 2013)을 횡단했다. 이번 원정까지 총 6번 사막을 건넜다. 남 대장의 목표는 인류 최초로 세계 10대 사막을 무동력 횡단하는 것이다.
남 대장은 2013년 스포츠동아와 인터뷰에서 ‘사막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현대 탐험에서 산은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개척이 될 뻔 한 곳에서 자신만의 탐험 스타일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사막을, 그것도 두 다리만을 의지해 건너는 모험은 그에게 더 없이 적합한 선택이었다. 남 대장은 “사막이야말로 엄청난 매력을 지닌 장소”라며 “역사, 문화, 지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리가 숨겨져 있는 곳이 사막”이라고 했다.

남 대장은 2013년부터 코오롱스포츠 헬린지팀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코오롱스포츠는 남 대장의 영입을 통해 그 동안 등산, 스포츠킴라이밍에 집중했던 아웃도어 후원사업의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남영호 대장은? 1977년 강원도 영월 태생 /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졸업 후 산악전문지 사진기자로 근무 / 2006년 유라시아대륙을 자전거로 횡단하며 탐험가의 길 시작 / 2009년 세계 최초 타클라마칸 사막 도보종단 / 세계 10대 사막 무동력 횡단 목표를 향해 도전 중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 ‘세계 11위’ 두 계단 상승

지난해 처음으로 생산 실적 4조원 돌파 중국·태국 등 신규시장 수출 증가 요인

국내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세계 11위로 집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 “지난해 국내 시장규모가 4조6315억원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위는 2012년부터 두 단계 상승한 것이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기 시장의 생산 실적(수출 포함)은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한 4조2242억원이었다. 중국,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등 신규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2012년(3조8774억원) 대비 8.9% 증가한 수치. 이 중 의료기기 수출은 23억6000만 달러(2조4183만)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반면 수입액은 27억3000만 달러(2조7922억)로 4.9% 증가에 그쳤다. 이로 인해 무역수

지 적자가 2012년 6억3000만 달러에 대비해 41.3% 감소한 3억7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생산실적 상위 품목으로는 치과용임플란트(5560억원), 초음파영상진단장치(5125억원), 치과용귀금속합금(1364억원), 소프트콘택트렌즈(1281억원), 시력보정용안경렌즈(1210억원) 순이다. 생산액 기준 상위업체는 오스텔임플란트(3968억원), 삼성메디슨(2690억원), 한국지이초음파(1724억원) 순이며, 상위 30개사가 전체 생산액의 44.2%를 차지했다.
수출만 보면 음파영상진단장치(5억4000만 달러), 소프트콘택트렌즈(1억2000만 달러), 치과용임플란트(1억1000만 달러), 개인용은열기(1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수입 상위 품목은 소프트콘택트렌즈(1억2000만 달러), 스텐트(1억1000만 달러), 자기공명영상장치(7000만 달러) 순이다. 이 중 소프트콘택트렌즈의 수입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학 기자 ajajato@donga.com 트위터@ajajato

기아차 ‘쏘렌토R’ 앞 유리 파손 자발적 시정

열선 과열로 파손 추정...무상 교환

기아자동차는 자사의 쏘렌토R(사진) 차량의 앞 유리가 열선 과열로 인해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해 자발적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쏘렌토R의 앞 유리가 과열된 열선으로 인해 파손되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 유리 열선부에 결로현상 등으로 인해 수분이 유입되면 실린트와 열선의 화학적 작용으로 열선 표면이

손상되는데, 운전자가 손상된 열선을 작동시키면 과열이 발생해 앞 유리가 파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기아자동차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은 개선된 열선 단자부가 장착된 앞 유리로 교환해 줄 것을 권고했다. 기아자동차는 이 권고를 수용해 13일부터 열선 과열로 앞 유리가 파손된 차량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후 유리를 무상으로 교환 조치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2009년 4월3일부터 2012년 11월15일까지 생산된 쏘렌토R 차량 12만7438대다.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 중 열선 과열로 앞 유리가 파손된 경우, 전국의 기아자동차 서비스망을 통해 무상으로 앞 유리를 교환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 유리가 파손된 쏘렌토 R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에게 기아자동차 고객센터(080-200-2000)로 연락해 점검과 교환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김재학 기자



관광산업도 ‘빅데이터 시대’

한국관광공사, SKT와 손잡고 빅데이터 분석

이제는 관광산업에서도 ‘빅데이터’ 시대가 열렸다.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방 축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빅데이터 활용 관광사업 성과 시범 분석-2013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란 제목의 분석 보고서는 16개 지방 축제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통신망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이용해 진행했다.
이동통신사 빅데이터를 관광산업 분석에 활용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드물다. 이번 분석에 활용한 전체 데이터 양은 DVD 51만장에 해당하는 2200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관광공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축제별로 외부 유입인구 규모 및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정보를 구축했다. 특히 카드사 매출 정보와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나 홍보 효과도 측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 관광공사는 SK텔레콤과 협력해 조사·분석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등을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 수립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빅 데이터’ 조사·연구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범 전문가 oldfield@donga.com @kobaukid

경제 브리핑

나이스정보통신 정전...일부 가맹점 카드결제 막

대형 VAN(결제대행업체) 사업자인 나이스정보통신 전산센터에 정전이 발생해 일부 가맹점의 카드결제가 마비됐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경부터 나이스정보통신 여의도 전산센터에 정전이 발생해 이 회사의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카드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이스정보통신은 2011년 기준 매출액이 1500억원으로 점유율 15.2%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에 이어 국내 VAN 업계 2위 업체다.

기아자동차, 2015년형 K5 출시

기아자동차가 13일 2015년형 K5(사진)를 출시했다.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시스템(TPMS), USB 충전기 등 안전·편의사항을 기본으로 적용했다. 블랙 럭셔리 알로이 휠, 크롬 스포터링 알로이 휠 등 18인치 신규 알로이 휠 2종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2.0 CVT 모델 2210만~2820만원, 2.0 터보 모델은 2805만~3020만원, 하이브리드 모델은 2903만~3220만원이다. 기아차는 K5 출시 4주년을 기념해 이달 중 2015 K5 가솔린 모델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1.4%의 최저금리(선수율 15% 이상) 혜택을 제공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4000명에 대해 6월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해외주식, 시세불이증권 등 기타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해당소득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 신청을 하지 않거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서울시,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서울시는 택시운전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지난달 말까지 구축해 서울시내 전체 법인택시 2만2732대에서 운영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 2월부터 2개 법인회사 택시 400여대에 이 시스템을 시범운영했다가 3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확대하고 있다. 이로써 서울택시정보시스템 상의 차량 운행이력,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상의 법규위반자료,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자 입·퇴사 현황, 법인조합의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증 취득정보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은 무자격 운전기사의 택시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운영된다. 운행 전에 카드결제기에 본인의 고유 운전자격번호를 입력하고 정확히 일치할 경우에만 운행이 가능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질통합예보센터’ 설치

안전행정부부는 출근이나 등교 전에 대기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게 되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안전부는 기상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를 설치했다.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질 통합예보뿐만 아니라 국민행동요령 홍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대기질 예보결과는 기상청의 기상예보를 통해 발표된다. 직접 에어코리아(airkorea.or.kr), 기상청 홈페이지(kma.go.kr) 등에서 대기질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대기질 상태가 ‘약간 나쁨’ 이상일 때는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